

## 제 7 강 매개의 언어

### ◆ 1교시 언어 안의 모든 것

#### ▲ 메타적 성격이 강한 언어학

오늘, 언어를 주제를 가지고 언어학 놀이, 언어 이론, 언어학과 언어철학 관련 분야해서 같이 8주간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결론 격에 해당하는 종합적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죽 전개했던 내용들이 언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언어라는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슨 의미로 쓰는 것인지, 하나의 개념정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 개념을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혼동의 여지없이 쓸 수 있는 거지요.

언어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언어가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거쳐야 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다른 모든 것, 대상도 마찬가지로 언어가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순도를 보장할 수 있는, 순도가 보장이 되는, 단일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척점에 있는,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언어가 그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가 되는가. 언어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될 수 있고 언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 문제를 첫 질문으로 던졌어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자면 그거죠. 언어가 하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순도가 보장이 되는, 즉 언어라는 단어 안에 여러 의미가 가능하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보장할 수 없겠죠. 그런 것이 아닌 하나의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학문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게 되어야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분야들이 언어를 다루는가. 두 가지 대척점 상에서 풀어야하는 문제가, 그렇다면 언어라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결국 하나의 단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서 이것이 똑같은 언어라는 단어를 썼다하더라도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내용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메타라는 말이 있지요. 메타피직(metaphysic)이라는 말도 써봤고 메타링기스틱(meta linguistic)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메타수학도 많이 쓰죠. 메타심리학도 쓰는데, 어떤 면에서 메타인가요?

우리가 실제로 받을 대고 있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가 주인공들이죠. 주인공들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할을 부여 받아서 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볼 수가 있고 더 위에 나무가 아닌 숲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메타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의 다른 대상들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은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안의 내용들이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것, 철학적인 관점에서죠.

거기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자체가 학문의 목적이거나보다는 다른 학문의 목적을 위해 언어가, 철학이라는 것도 언어로 구성되어있으니까. 모든 문화 활동이 그렇듯이.

언어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언어, 도구로서의 언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뒤에 있는 것이 보인다는 입장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언어라는 것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죠. 혹은 앞에 가려져 있는 필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철학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학문들에서의 언어의 역할이기도 하죠. 언어라는 것은 정리의 관념의 개념화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학문마다의 뒤에 가려진 혼돈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휘수가 많아진다는 게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어휘수가 많다는 것은 구별할 게 많다는 얘기, 분절할게 많다는 얘기. 그만큼 분석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한 가지 예로 눈을 지칭하는 표현이 에스키모인들에게 많다는 것은 눈을 분석할 일이 많다는 거죠. 눈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 똑같이 눈을 지칭하는 말이 많아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많은 어휘들 사이에서 그 안에서는 쓸데없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죠.

대상 A와 대상 B가 서로 다른 것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것이라라는 거죠. 결국 A와는 B동의어구나, 이런 말로 귀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가 불필요한 말이구나 하면서 사멸될 수 있는 거고.

어휘의 출현과 사멸 이런 것들이 결국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이었는데, 그게 바로 언어적 분석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어휘의 단절 분절 어휘사이에서의 구별 이런 것들, 그것도 특정 어휘와 특정 어휘사이에서의 재결합, 특정 단어의 소멸 이런 것들.

그런 식의 언어적 흐름을 분석하자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각 개별 학문들을 분석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언어철학 중에서 분석철학, 언어철학을 광범위하게 지칭할 수 있지만, 분석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에서의 방법론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언어자체를 관심을 두고 한다기보다는 언어가 실제로 쓰이는 것들, 구체적인 도구잖아요. 그것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언어라는 자체를 다시 말하면 언어학을 위한 언어니까 언어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언어학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학문들과 달리 메타적 입장이라는 거죠.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라는 것은 고유의 특정한 성질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존속가능성을 보장받으려면 심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학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문제 얘기 많이 했지요. 각 학자들 사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학자가 사용했을 때, 심리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 안에 심리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을 정의되지 않고 썼다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학문대상으로 정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학문을 전개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언어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들도 언어라는 자체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언어라는 대상으로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려면 언어가 어떤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가 선결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메타적입장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문학적인 방법이 메타적 관점이라 말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학문을 한다는 것이 자연과학이든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다른 대상을 보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자연적 차원에서 본다면 생명체들, 유기적이지 않은 무기적인 그런 대상을 본다면 대상으로서의, 우리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것인데.

모든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들여다보는 것이니까 인문학 자체가 메타적이라 할 수 있죠. 그중 언어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의 막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메타적이라고 할 수 있죠.

#### ▲ 소쉬르 - 언어학의 대상 제시

언어의 분석이 다른 언어를 통한 각 개별학문들의 대상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언어학이죠. 언어자체를 대상 자체로 본다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제시했던 것이 소쉬르였어요.

소쉬르가 제시했던 대상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먼저 언어학의 대상이 많지 않겠느냐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학문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는 다른 것이잖아요. 소쉬르가 말한 대상으로서의 언어, 한 특정집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 같은 것이 학문의 대상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이전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먼저 대상이 주어져서 그것을 연구하다보니 학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만들어야 학문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순도가 보장이 되는 대상을 만들어야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언어학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 ▲ 엘름슬레우 - 언어학 주창

그 이후로도 다른 시도들이 있었는데 특히 언어학자들 안에서 계보들 중에서는 엘름 슬레우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던, 한국말로 언어학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신조어죠. 그런 말은 없고.

‘글로소마티크’라고 하는 말. ‘glosso’라는 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회랍어에서의 말이라는 뜻인데, 말이라는 뜻에다가 ‘matique’라는 영어에서 mathematics, 수학이라는 말의 -matic을 붙여서 말을 가지고 하는 대수학 이라는 말이죠. glossematic이라는 말도 신조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한국말에서는 신조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흔히 언어학이라는 학문적 모델이 소쉬르가 제시했던 그 모델을 잘 세련되게 대변한, 소쉬르의 책에 소개되지 않았던, 균형이 맞지 않았던 그 부분을 추론해서, 그렇다면 시니피에도 이렇게 되어야한다는 제시.

그런 모델을 언어학적 모델을 잘 정리해준 사람이 엘름슬레우.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주로 활동해서 코펜하겐학과라고 하는데 그 모델을 큰 발전을 못하고 엘름슬레우 사후에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그 이론자체를 제자들도 난해했다고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따른 이유로 해서 지금은 이어지지 않는 역사적학과로 남아 있는 건데, 그 이외 다른 학문, 소쉬르 이후로 왔던 학문을 보면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 ▲ 소쉬르 이후 - 기호학

기호학이라는 경우는 기원을 펠스, 논리학자, 에서 찾는 사람도 있는데, 펠스와 소쉬르의 학

문적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징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죠. 두 명 사이의 학문적 교류가 없었는데 비슷한 둘 다 용어를, 기호학이란 용어를 썼죠.

비슷한 제시를 한 게 있다면 소쉬르의 경우, 언어도 하나의 기호이고 기호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들을 더 큰 범위에서 기호학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펠스도 비슷한 논리로 기호라는 세계, 인덱스(지표)와 센스(의미) 사이에서의 모델을 가지고 기호학이라는 모델을 지시했었는데, 그 이후로 소쉬르의 모델을 받아가지고 많은 기호학이론이 생겼죠. 소쉬르 본인이 얘기했던 하나의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학문적 대상, 그런 것과 사실은 떨어져있어요. 기호학이 위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호라고 하는 것이 언어처럼 기호화되어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언어가 기호라면 상위의 기호체계가 큰 틀에서 설명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롤랑 바르트의 경우는 소쉬르의 기호학을 받아서 전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쉬르와 견해를 달리하죠.

소쉬르의 경우는 언어라는 것이 기호라는 대상의 하류분야라고 하는데 반해서, 말하자면 기호라는 것이 있고 기호체계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의 한 분야가 언어라고 말한 것에 반해

롤랑 바르트는 모든 기호체계의 모델은, 구성방법은, 언어학에서 근거해서 언어학적 모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언어학에서 유추한 학문들인지 상위의 개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학이 상위개념이고 거기서 유추해서 나온 것이 기타 다른 기호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기호학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 안에서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기호학이라는 분야가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언어학적인 모델인 것이 분명해요.

이후로 기호학이라는 말이 생긴 이후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틀이 시니피앙 시니피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니피앙 시니피에의 설명구조를 보면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시니피앙 시니피에와 동떨어져있다고 했죠. 그것들이 지난번 수업에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 ▲ 언어를 구성하는 두 면 - 시니피에 시니피앙

이 이야기도 해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철학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질료와 형상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이요. 질료와 형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역시 이것도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본다면, 질료와 형상이 그 안에 다양한 불필요한 중복된 것이 섞이지 않고 순도가 있는 학문의 대상인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놔서 분석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형식과 형태와 내용물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시니피앙 시니피에의 말로 표현되었던 두 면, 언어의 두 면의 측면에서, 두 면의 경우 두 면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가 의미를 하는 주관적인 능동적인 개념이죠.

이미 시니피앙이라는 말 자체가 불어에서 현재분사의 역할이에요. 영어에서 ing 영어에서 ~을 하는, 영어에서는 signify라고 말해요. 영어에서는 물론 현재분사를 쓰지 않고 -er을 써서 ~을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죠. 반면 signified라면 의미가 되는, 기호가 되는 것으로 과거분사를 쓰죠.

그 둘 관계에서 보더라도 하나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틀이라고 하고, 하나가 내용물 질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시니피앙 시니피에가 형상과 질료의 관계를 그대로 현대적 의미에서 얘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 ▲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그리고 정신분석학

그런데 언어에서 시니피앙 시니피에가 다른 학문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행동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로 정신분석학에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말실수라든가. 말실수 안에 있는 내용물. 왜 저런 말이 나왔는가, 그런 거죠.

흔히 오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 안에서 알 수 없지만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수면 밑으로 잠복되어 있는 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 번씩 빠져나오잖아요. 말실수하는 경우에 나오죠.

90년 중반 즈음 대통령 프랑스에서요 선거가 있었는데 95년 즈음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것이 자크 시라크이죠. 첫 번째 임기를 마칠 즈음 두 번째 다시 한 번 도전하려는 시기죠. 그 즈음 총리는 사회당의 르네 즈스팩이 총리였어요. 사회당의 당수격 총리였어요.

동거정부였던 거죠. 대통령은 우파고 내각은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프랑스 정치상에 특징으로 가끔 나오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표면화되기 전 기자들은 물어보겠죠. 총리에게 이번 선거에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총리 입장에서 바로 나갑니다, 말하긴 그렇죠. 항상 숨기는 거죠. 나는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총리로서 맡은 바 잘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기자가, 그러면 사회당의 당수입장에서 사회당에서 정권창출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하면, 동의를 하죠.

그렇다면 사회당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하니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총리가 얘기하

다가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 우리 우리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바로 우리로 바로 고쳤는데 이런 말실수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항상 있죠.

그걸 던지자마자 기자가 놓치지 않죠. 바로 내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자 인정을 하면서 프로이트가 프랑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수정을 하겠다. 하고 ‘우리가’라고 수정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런 말실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열쇠로서 뒤에 들어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로 활용하는 시니피앙이라고 하죠. 언어학에서 말하는 시니피앙과 거리가 멀죠. 그런 의미에서 표시하고 있는 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니피앙 시니피에와는 거리가 멀죠.

### ▲ 언어를 구성하는 두 축 - 베로니케의 축과 브로카 축

또 하나 두 면 말고,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변별가능성을 알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개념, 변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구성할 수 있다는 능력과 다르다고 했죠.

자연적 단계에서 뭐라고 할까, 관념적 단계가 아니라 관념 이전의 지각의 차원에서 색깔을 구별한다든가 형태를 구별한다든가 그런 것이 구별 가능했을 때 관념화시키기 위해 단어가 다양화되겠죠.

그런 다양한 단어들, 그러다가 지각과정에서 이상하다고 하면 단어가 수정되겠죠. 아니면 단어가 다양화되니까 지각과정이 달리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상호 대화가 꾸준히 이어지는 거죠. 단어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지각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각이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켈리티의 축을 얘기했죠. 베르니크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환자들의 경우 구별을 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죠. 그것을 베로니크가 발견해서 베로니크의 환자라고 했구요. 켈리티를 잃어버린 환자들의 경우죠. 또 하나의 축이 퀴티티, 양이 문제죠. 구성이라는 것의 문제죠.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라는 말을 썼을 때는 굉장한 두뇌의 작용의 최종결과물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안에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눈앞에 있는 책상이라는 것을 하나라고 한다는 거죠. ‘책상이 하나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책상이 바닥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어디부터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책상이 하나있다는 것은 책상의 표면과 책상이 다리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바닥과 다리 아랫부분을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을 만드는 거죠. 어디는 붙어야 하고 어디는 떨어져야 한다는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 ‘그노시스’ 얘기했죠.

그노시스의 능력이 결여된 환자의 경우라고 얘기했죠. 그런 경우 구성이 안돼요. 구성이 안 되면 언어의 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언어의 단어의 구성이 된다는 것은 사물로서의 하나의 단위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안된다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브로카가 발견했기 때문에,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했고, 물론 지각의 단계가 아니라 개념을 만들어 내는 언어를 만들어 내는 단계에서의 경우라고 했죠.

브로카의 영역 베르니케의 영역, 뇌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그게 망가지는 것임을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했죠. 하나의 구성을 한다는 문제하고, 개별적인 뭐와 뭐가 재료로서 들어간다는 것과고를 따진다면,

책상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책상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다른 무엇과 구별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 다른 것들과 공통적인 것이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구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별성들이 하나의 구성체 안에서 녹아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두 축 중에서 유닛unit을 만든다는, 구성을 만든다는 ‘브로카 축’이 형식이 될 수 있고,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는 축, 베르니크의 축 말이죠. 변별성을 보장하는 그런 축, 그런 것이 질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 언어를 구성하는 두 극 - 비움과 채움

질료와 형상의 문제가 또 하나가 드러나는 거죠. 반면 질료와 형상을 과거의 현상을 쫓던 걸 들여다보면, 세 번째 얘기했던 두 면과 두 축 말고 ‘두 극’이라고 표현했지요. 물론 여기서 ‘면이다, 축이다, 극이다’는 비유적 표현이고 물리적 축이 있다고는 안했죠.

소쉬르 본인도 비유적 표현이라 했죠. 소쉬르가 비유적 표현 많이 했죠. 소쉬르가 체스를 좋아해 체스에 많이 비유해, 언어에 비유해 체스에 뭐와 같다고 비유를 많이 했는데 면이니 극이니 이런 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두 면, 두 축 말고 두 극이라는 표현은, 변증법의 이론으로 설명을 했던, 인간이 문화의 측면, 자연의 측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직접적인 ‘소여’들. 불어로 이마주, 베르그송이 말했던 이마주로서의 것들, 그것은 관념화되기 이전 단계인 거죠. 관념화된다는 애기와, 관념화 전단계의 두 가지가 분명한 구별이 없어요. 베르그송에게는요.



직접적으로 주어진 소여(所與), 분명히 있죠. 그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죠. 직접적으로 주어진 소여들, 그것은 자연단계에서의 지각의 단계죠.

그 다음 지각을 가지고 다시 관념화시키는데 있어서 바로 관념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의 반을 거쳐서 나온다고 했죠. 실제로 있는 내용물을 설명하는데 있어, 실제의 내용물을 빈껍데기로 바꾸잖아요. 소리의 영역에서도 그랬고, 지칭하고자하는 대상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그 자체를 그대로 관념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자연 안에는 딱 차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연속적이고 모든 것이 붙어있고, 딱 차있어요. 이것을 문화화 시킨다는 것은 이것을 분절한다는 거죠.

전부 비운다는 거죠. 전부 추상화한다는 거죠.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거죠. 문화라는 것의 첫 단계는 거기에 있는 거죠. 다 분절한다는 것, 비운다는 거고.

수학도 그렇죠. 연속되어있는 선을 불연속화시켜서 점점 끊어놓는 것이 수학이죠. 끊어놓고만 있을 때, 그 단계가 자연에서의 ‘딱 차있는 비움이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극이라고 할 수 있죠. 빈껍데기예요.

비어있는 빈껍데기, 틀, 형식,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반면 채움이라는 것, 지난 시간 현상학 얘기했는데 빈 틀을 채운다는 것, 그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단어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죠. 의미작용을 한다는 것이 채움의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실제의 대상들하고 관념화된 대상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반의, 반을 거쳐 왔기 때문이죠. 실제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기 위해 빈껍데기를 거쳐 거기다 채우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의 내용과 관념화된 사이에서는 이격이 있을 수 있죠. 불완전하죠.

그럼 왜 관념화시킬까요. 그만큼 정확하죠. 분석이 된, 분절이 된, 그 다음의 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죠. 더 분석의 가능성이 있고 전달이 가능하고. 바로 그 차이죠. 거기서 두 번째의 극, 비우기의 극과 채우기의 극.

즉 처음의 단계는 자연단계고, 자연단계를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비우기 단계와 채우기 단계를 거쳐 관념화시킨다고 했었죠. 두개의 극, 하나는 형식이죠. 빈껍데기로의 형식, 거기에 채워 넣는다는 것으로 내용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상과 질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가요.

그런 것처럼 형상이라는 말, 질료라는 말 사이에 만들어진 양분 이론의 경우에 그 안에 다양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들어있다는 거죠. 이것도 분석이라 할 수 있죠. 언어학적인 발견 안에서 그 이후에 기준을 통해서 또 한 번 철학을 분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방문할 수 있죠, 철학을. 그러면서 철학에서 많이 쓰인 질료와 형상의 문제가 이런 걸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질료와 형상이라는 것도 다양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언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분석의 대상,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 이것과 이것은 나뉜다는 것, 구성과 변별성, 두개를 잇으면 안 되죠.

### ▲ 메타포

그런 것처럼 기호학이라는 말 안에서도 다양하게 서로 같지 않은 두개의 대상이 하나로 묶여서 얘기가 되는 것이 많이 있었고, 시니피앙 시니피에 문제가 그랬죠. 언어학에서 쓰는 문제와 다른 의도로 썼다는 거죠.

질료와 형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질료와 형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묶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내용을 묶어 넘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메타포라고 부르는 은유라는, 은유의 함정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은유라고 하는 말이 문학적 차원에서 가장 수사의 꽃이라고 하죠? 문학의 꽃이에요. 은유는 문학의 꽃인데 그게 왜 어떤 능력을 얘기하나요?

수사학 얘기라고 할 때 얘기했지만, 동일한 대상이 있다면, 말하자면 두개의 대상이 있는데 두개의 대상 사이에서 전혀 둘 사이에서 유사성이 없다고 발견되면 둘 사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섞여있는 구성물들을 보다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발견할 수 있다면 A와 물건과 B가 다른데 다른 두 대상들 사이에는 유사한 동일한 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커다란 상위개념에다가 추가로 다른 개념을 추가하면,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상위개념의 하위개념에다 척추를 추가하면 척추동물이 있고, 척추동물 안에서도 특정한 하위개념을 추가하면 또 갈라지죠. 하위에 있는 두개의 대상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이 남아 있는 거죠. 동일한 대상 사이에서의 유사관계가 은유죠.

### ▲ 문학과 언어학의 관계

문학에서의 은유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학에서의 은유는 뭔가요. 문학에서의 은유를 쓴다면, 문학과 언어학 무슨 차이가 있죠. 언어학은 분석하는 학문이죠. 다 쪼개는 거죠. 한 마디로 재미없죠.

마치 비교하자면 요리학하고 식품영양학하고 비교하면, 내용물을 분석하고 조개는 사람에게 요리하라고 하면 요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분석한다는, 조개한다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조개고 해서 다른 요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도리 수 있을지 몰라도 요리를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리를 한다는 것은 조개는 게 아니라 붙여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 종합해서 완성을 시켜야 요리죠. 식품공학은 만드는 게 아니죠.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개한다는 거죠. 두개가 차이점이죠.

언어학이라는 것도 분석하는 것이고 반면에 문학은 언어를 붙이는 거죠. 만들어서 완성체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멋지게 만들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실용학문이죠. 언어학은 순수학문이죠. 개념이 다른 거죠.

에스테틱이라는 말이 추가될 수 있죠. 언어학에서는 에스테틱이 적용 안 되죠. 문학은 에스테틱이라는 측면이 들어가므로 진부함이라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생물학에서 분류, 조개를 때 원숭이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생물학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둘 사이에 비교하는 것은 문학적이지 않죠. 진부하죠. 그 안에서의 유사성, 다른 것이 있으니까 유사성이라는 말을 하죠. 유사성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상위 개념 하에서 둘로 갈라졌다는 건데, 둘 사이에서 비교의 대상은 아주 진부한 대상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혀 새롭지 않고 미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문학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문학에서의 이론은 이 두개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문학이라는 거죠.

천재적인 시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하나도 모르겠네, 그렇지 않죠. 보통 그래 맞아 동의하는데 어쩔 이런 말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A와 B가 아니라 F와 A와 Z들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끄집어내서 비교할 수 있는가.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문학이죠. 그런 식으로 은유라는 것이 문학이 서로 멀리 있어 보이는 그런 둘 사이의 유사성을 끄집어내서 놓는 거잖아요.

#### ▲ 은유와 은유의 함정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금 얘기한 것과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리는 같은 원리,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상위개념 이라는 것 안에서 추가로 하위개념을 추가하면 또 두 가지가, 세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고, 또 갈라지고. 거기서 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 상위개념을 가지고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은유라는 거죠.

그랬을 때 조심해야하는 것이 동일한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동일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동일한 대상이 있어서 동일한 점을 상위개념을 매개로 해서 A에서 B로 넘어갔어요. B를 가지고 설명해요.

은유가 그런 거죠. A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B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B를 설명하다보면 B의 특징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A에 없는 B의 특징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A도 똑같은 특징이 있다고 착각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은유의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죠.